

CICA Hip-A Seoul 2020

CICA Museum

September 9 - October 4, 2020

2020. 9. 9 - 10. 4

Featured Artists 참여작가: Choi 초이, Channy Huh 허찬휘, Jiyoung Lee 이지영, June Lee 이지은, Geehee Lyu 류지희, Jeesu Jang 장지수, Suyoun Jung 정수연

1. Choi 초이

“Made in Korea” (2020)

This is a story about a Concept Object, of which the sense of belonging has been volatilized. It is made of a dot, a line, and a side. The ‘Object’ means the artwork with the physical properties that has been caused by the combination of time and space. The ‘Concept’ means the perception of a third party, who once again interprets the ‘Object’ spatiotemporally. The ‘Concept Object’, however, due to its identification of intensive esthetic value, ironically do not and cannot be in one place. It floats around the world, like being on the surface of the water.

‘Why were we born, and why do we continue with our life?’ The extension of these fundamental questions yields a purposeless and obscure answer, which makes the ‘Newly-born-Thing’ wander. ‘Why has it been made and why does it exist?’ The questions essentially go back to the dot, the line, and the side. The only thing left is the ‘Concept Object’ of which the sense of belonging has been volatilized.

Just as we ponder upon the question ‘How do we live this life?’ rather than ‘Why do we live this life?’, Objects, made by an expresser, all alone has to face the audience. According to Stephen Van, this process of interpretation is limitless, and which can only be terminated when the individual’s desire to understand gets weaker. Eventually, the original identity of the ‘Concept Object’ is wiped out and thrown into the ocean, letting nature take its course.

Consequently, the panel,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paint, the image located between the representation an abstraction, and the time of concentrated trace achieve objective force, and they naturally return as the ‘Thing’ made by the expresser, the ‘Thing’ made in Korea.

점과 선 그리고 면이 합쳐져 탄생한 소속감이 휘발된 개념물체의 이야기이다. 여기서 말하는 물체는 시공간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물성인 작품을 의미하는 것이며, 개념은 그 물체를 다시 시공간적으로 해석하는 제 3자의 인식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학가치가 집약적으로 정체화 된 개념물체는 아이러니하게도 물 위를 부영하는 듯 어디에도 위치하지 않고, 위치할 수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닌다. 왜 태어났고, 왜 사는가? 근원적인 물음의 연장선은 목적이 결여된 불분명한 답을 낳아 ‘것’ 만들어진 ‘것’을 유랑하게 만든다. 왜 만들어졌고, 왜 존재하는가. 질문은 다시 본래의 점과 선 그리고 면으로 돌아간다. 이제 자리에 남는 건 소속감이 휘발된 개념물체 뿐이다.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고민하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표현자의 손에서 탄생한 물체는 손아귀를 벗어나 홀로 해석 의지가 있는 사람과의 대면을 앞둔다. 이 과정에서 스티븐 반의 말을 빌리자면 해석이라고 부르는 과정은 사실상 한계가 없이, 개별 주체의 알고자 하는 욕망이 약화될 때에만 종결될 수 있게 된다. 결국 개념물체는 본래의 정체성이 지워진 채 소속 없는 형태로 바다에 던져져 자연의 흐름에 항해를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남겨진 판넬과 물감의 물성, 구상과 추상 사이에 위치한 표면에 행해진 상, 농축된 시간의 흔적은 객관적인 힘을 얻어 자연스레 표현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회귀된다.

CHOI is a contemporary artist born and based in Seoul, South Korea. Majored in Printmaking, and interested in the process utilizing a medium, she studies the pure identity of a medium in the course of creation. She is currently exploring a shape with physical properties that induce synesthesia.

CHOI 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활동하는 컨템포러리 아티스트다. 판화를 전공하여 매체를 이용한 프로세스에 관심을 지닌 그녀는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수한 매체의 정체성을 연구한다. 현재는 공감각적인 감성을 야기시키는 물성적 형태를 탐구하는 중이다.

2. Channy Huh 허찬휘

“일시 정지 (Press Pause)”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trauma and space is complicated. While we perceive trauma as something that happens within, we understand space as something outside of us. But more often than not, space that we are in, things that we see, touch, smell, and seperienc become the very trigger points for our emotional distress, Maybe that explains why certain objects inside my dorm room, otherwise not-so-special regular objects to other people, held heavy emotional weigh for me. As a way to cope with emotional trauma attached to the room and objects inside, “press Play” uses humorous, naive design and color palette to lessen the emotional significance these objects hold. The repeat is broken up by overprinting and the play and pause button to indicate the intention to reimagine and reinterpret the space.

트라우마trauma와 공간space의 관계는 복잡하다. 트라우마는 우리 심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경험의 실재이고 공간은 우리를 둘러싼 외부의 감각적 실재라고 쉽게 이해한다. 그러나 이 둘은 우리가 있는 공간-즉 보고, 만지고, 냄새 맡는 이경험의 공간-의 어떤 사물이 때로는 감정적 고통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방아쇠trigger가 되기도 한다. 그 때문에 가령 기숙사 안의 특정 사물이, 다른 이에게는 특별하지 으날은 평범한 것이 한 사람에게는 몹시 무거운 감정적 짐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 “일시 정지”는 한 공간과 공간 속의 한 사물(개인의 정서적 경험이 깊게 투영되고 고착되어 있는 것)과 개인의 트라우마의 관계를 인식하고 위로하며 온기있게 하는 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유머러스하고 낙관적인 디자인과 팔레트 색상의 고유한 해석으로 이 공간과 사물과 트라우마의 무거움을 줄여 가고 있다.

패턴은 OVERPRINTING(실크스크린 테크닉의 한 종류, 스크린을 조금 움직여서 디자인 을 찍어 글리치 효과를 내는 기법)과 “재생 및 일시 정지(음원의 재생과 정시 표시)”를 REPEAT PATTERN으로 호트러뜨림으로써 반복의 느낌은 있으나 반복의 지점은 알 수 없게 한다.

이 작품에 개인적인 한 공간을 이전과 다르게 상상하고 위로하고 온기를 불어 넣는 시도와 재시도를 달고자 했다.

허찬휘는 한국의 섬유 예술가로서 시각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대치되는 개념을 다양한 유형의 직물 제작 방법을 통해 병치(juxtapose)하고 새로운 이해를 구축해 가는 디자이너이자 작가입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인간의 어두운 감정과 함께 평온함과 충만함이라는 인간의 긍정적인이고 환한 감정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텍스타일을 전공 한 그녀는 색과 재료의 관계를 통해서 재료 문화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고 공예-수공예(arts and crafts)를 예술의 한 형태로 추구하고자 합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에서 텍스타일 (BFA)을 전공하고, 영국 로얄 컬리지 오브 아트 석사 재학중입니다.

3. Jiyoung Lee 이지영

“cleanse ” (2020)

페인팅과 나는 형식에 갇혀 서로를 마주 보고만 있다. 나의 제스처가 기록되어가는 동안, 캔버스와 나는 작가와 작품으로서의 관계가 명확해진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소음이 인다.

프레임의 해체는 틀과 형식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굳었던 물감이 지워지는 과정으로 페인팅은 보다 더 원초적인 형태가 된다. 하나의 천으로, 하나의 나무조각으로.

정화와 비워냄의 수행인 목욕으로, 작가 또한 원형에 가까워져 본질적인 형태로 페인팅을 마주하려 한다. 알 수 없는 소음이 사라지길 바라며.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하고, 인터랙티브 설치에 작품의 초점을 두었다. 그 외, 영상, 퍼포먼스, 페인팅 등 다양한 분야를 시도하고 있으며, 한일 교류 전, 2인전시 및 다수의 그룹 전시에 참여하였다. 존재의 의미와 방향을 탐구하며, 작업을 통해 이 탐구각 사회적으로 어떠한 명확한 목적과 절대적 필요성을 갖는지 찾고있다.

4. June Lee 이지은

“Hip, Seoul” (2020) “나무와 (With tree)” (2020)

서울의 특정한 장소를 배회하다 보면 공간과 인간이 부드럽게 공명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순간들이 있다. 그러한 순간들을 그려오면서, 우리가 장소에서 느끼는 기운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장소에 물리적인 것 외에도 다른 것이 축적될 수 있을까? 단 하나의 요소로 규정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들은 어떤 감각으로든 장소에 내재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풍부한 감정을 일으키는 장소들은 그 장소에 축적된 역사적인 시간과 사건들의 층위가 그만큼 깊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기운’을 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좀 더 거시적으로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축적된 한국만의 독특한 삶의 정서가 있다면, 그것은 도시가 형성되는 모든 과정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을까? 나는 한국은 예로부터 공간과 인간이 무엇도 우위에 있지 않고 서로에게 스며들 듯이 존재해왔다고 생각한다. 공간과 인간이 유기적으로 공명하며 자연스럽게 축적되어온 한국만의 기운을 ‘스며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존재방식이 서울이란 대도시에서 부드럽게 표출되는 순간들을 찾아가고 싶다.

나의 회화는 풍경에서 느꼈던 경험의 질감을 구현하는 또 다른 하나의 장소이다. 나는 물감을 캔버스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여러 번 스며들게 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각각의 레이어는 이전의 레이어 위에 견고한 층이 되어 스며들고, 이러한 과정은 특정한 질감을 만들어낸다. 모든 텍스처가 캔버스에 고르게 분포되어 천천히 흡수되면, 프레임 속에 공간과 인간은 하나의 덩어리처럼 부드럽게 공존한다. 내가 바라본 서울의 독특한 분위기처럼 말이다.

최근의 작업들은 나에게 미묘하지만 특정한 감촉을 불러일으켰던 순간들을 통해 풍경 이면에 내재된 다양한 층위들을 찾아가는 시도이다. 공간, 장소, 사람이 묘하게 공명하며 흡수되는 듯한 상황들은 특정한 기운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나는 그것을 회화의 감촉으로 다시 재생시키고자 한다. 그러한 시도들이 쌓여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의 특수하고 내밀한 공간감을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작업을 지속해나가고자 한다.

서울에서 작업을 해오고 있다.

“늘 똑같은 풍경을 보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면 그 풍경을 더 능동적이고 섬세하게 바라보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회화 작업을 시작하였다.

지난 2년간 작업해온 ‘풍경의 감촉’은 서울의 특정한 장소들에서 나에게 의미있게 다가온 장면들을 회화의 감촉으로 구현하는 사회적이지만 주관적인 풍경화 시리즈이다. 역사적으로 축적되어온 한국인만의 독특한 삶의 정서가 있다면, 그것은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형성되는 모든 과정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예로부터 공간과 인간이 무엇도 우위에 있지 않고 서로에게 스며들듯이 공존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공간과 인간이 유기적으로 공명하며 자연스럽게 축적되어온 한국만의 기운을 ‘스며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존재방식이 서울에서 발현되는 순간들을 찾아가고 있다

5. Geehee Lyu 류지희

“Untitled 무제” (2009) “Untitled 무제” (2009)

“빛 속의 초록 - 정물 ” (2018)
“가을 창가” (2009)
“쿠키 공장 a Cookie Factory” (2014)

색, 그리고 형태.

형태는 색상을 입히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그것이 2008년 가을, 벨뷰Bellevue에서 처음 붓을 들었을 때부터, 내 그림의 중심 기둥이 되었다. 다양한 미디어, 동시에 그림의 대상이 바뀌더라도 그것만은 바뀌지 않았다.

초기작에는 색과 추상적 형태로 이뤄진 작품이, 그 후에는 인공적인 도시의 모습으로.. 도시는 어둠 속을 밝히며 화려하게 빛난다. 밤하늘의 인공위성이 자연의 별과 다름없이 어둠을 뚫고 반짝이듯, 인간의 손길 끝에 태어난 인공의 물체와 풍경 또한, 그 자체로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은 무겁다. 첨단 도시조차 흘러가는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 그 폐허ruin에서 빛과 어둠의 대비로, 차가운 현실과 이름 모를 희망을, 그 무엇도 영원할 수 없다는 로맨티시즘에 기대어 이뤄진 2015년의 작업들. 다시, 두 눈은 주변의 일상적 물체들과 자연-숲과 정원-으로 옮겨졌다. 그것들은 캔버스 위에서, 내가 선택한 형태와 색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색들이 모여진 결과는 전에 없던 조형과 감각이기도 하다.

그림을 그린다. 존재하기 위하여.

2017년, 반 년 간 여행한 프랑스와 뉴욕 중심으로 작가들이 즐긴 명소들을 스케치로 기록한 여행 에세이를 브런치에 연재 중,

현재 서울에 정착하여, 수채화와 유화로 ‘빛 속의 초록- The Garden of XYZ’ 시리즈 작업 중 .

I paint. I write. Every stroke, every word remains where I put it. Past, it is intangible. It disappears. There is no present as it becomes past before I notice it. I paint. I put something on the surface to prove that I am here. Pieces I made are there proving that I was there. For me, being an artist is to be.

6. Jeesu Jang 장지수

“잔상 #11”(2020)

“잔상 #2”(2020)

-잔상#11

‘잔상 11’은 작업에 있는 모든 요소를 최소화하고 움직임 자체에만 집중하게 된 작업입니다. 움직이는 물체 또한 제일 기본 도형중에서 선정이 되었으며 움직임 또한 매우 단순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작업에선 물체의 명암과 연속성을 조절하여 잔상을 표현하였으며, 받침대에 올려 놓은 것과 시멘트, 석고의 재료이용으로 기념비적인 아우라로 과거의 움직임을 표현하였습니다.

The main desire when making ‘afterimage #11’ was minimizing every aspect of the work except the movement itself. Choosing the most basic shape as the moving object and also the most basic movement.

The method used in this work was controlling the light and shades of the object in presenting the movement. Also positioning the work on a fixed stand gave it a little bit of a monumental atmosphere.

-잔상#2

'잔상 2'에서 쓰인 표현방식은 주로 만화같은 그림에서 볼수있으며 물체뒤에 선몇개를 그려서 물체가 움직인다는걸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선들 몇개로 인해서 한물체를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 흥미로워 이를 입체적으로 표현해본 작업입니다.

The effect I chose in 'afterimage #2' was how afterimages are drawn in comics. In the strip comics that are combined with many still images it is these simple lines drawn behind the character that explains the viewer if the character is moving or not.

How these simple lines can change the condition of an object, it seemed very obvious though a strong symbol.

움직임을 포획하려 시도하는 작가 **장지수**입니다.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움직임이라는 현상은 세상 모든곳에 있을 뿐만아니라 모든것을 이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사실상 포획 한다는건 불가능하다는걸 알지만, 각 움직임의 주 요소들을 찾아내어 최대한으로 표현하려 노력하고있습니다. 저 한테 있어서 움직임은 0 과 1 사이에 있는 무수한 숫자들입니다.

I am an artist who tries to capture 'movements' as an artwork. This phenomenon 'movement' that happens and disappears in seconds are what connects everything that happens. Although it is an inarguable fact that capturing a movement is impossible, I still challenge to find the most viewable points in each movement and build it into a sculpture. To me the movements are what makes our world not binary.

7. Suyoun Jung 정수연

“포착된 움직임” (2020)

“포착된 움직임2” (2020)

“몰락하는 자의 숨 3” (2016)

작가는 경험을 토대로 불안과 의지의 힘, 이 두가지가 공존하는 삶에 대한 페인팅과 타피스트리를 제작하였다. 자신의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규정된 주체로서의 삶은 불안을 경험하게 했다. 이는 개별적이고 본래적인 자기를 상실함으로써 '무'의 상태가 되는 것이기에 공허하고 무상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불안으로 드러난 '무'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존재성을 자각하게 되고 새로운 방식을 사유하는 '사유의 의식'이자 의지의 힘을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의지의 힘은 과거의 불안한 자아를 스스로 파괴하고 미래의 자신의 자유 속에서 선택한다. 스스로를 파괴하고, 다시금 새로이 만들어 나가는 의지의 힘은 매순간 자신의 변화 가능성을 창조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초인적 존재'이다.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모습으로 존재하며 미래적 인간이다. 무너뜨리고 해체시키는 운동성과 새로이 생성해 나가는 운동성은 서로 대립적인 성향을 띠지만 상호적으로 공존함으로써 의지의 힘은 작동한다.

대립적인 운동성이 함께 작용하고 순간은 하나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거나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규정되어질 수 없는 상태인 의지의 힘은 잠재성이 꿈틀대고, 확장될 수 있는 근거지이며, 본인의 작품에서 흐트러지고 무너져 내린 불분명한 형사의 '비천한' 육체와 그 속에서 다시 솟아나려는 형상이 혼재하는 카오스로 드러난다. 무질서하고 혼돈의 상태에서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포착인 것이다.

세계와 자신을 구분짓는 막으로 존재하던 피부는 마침내 무너져 안과 밖이 뒤섞인 혼돈의 신체, '경계 실존'으로 변화한다. 타파스트리는 신체 부위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표면의 '구멍'을 통해 2차원03차원의 경계를 위반한다. 이는 양 차원의 영역을 횡단하는 과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경계가 균열되어 상호 침투하여 생성을 함축하는 장소이다. '의지의 힘'이 존재하는 방식으로서의 육체와 타피스트리의 형식적 요소들은 '경계없는 경계'의 특성을 지니며 '생성'을 이루어 낸다.

작가는 불안과 의지의 힘, 이 두가지가 공존하는 삶에 대해 타피스트리와 페인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 극복하는 과정의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미래로 건너가게 하는 힘, 사진속의 혼동을 간직한 채 구름을 뚫고 나아가는 의지의 힘을 포착하고자 한다. 작가는 상명대학교에서 의상디자인과 섬유디자인, 국민대학교에서 예술학을 수학하였다.